

포틀랜드 보광사 불단조성 모연문

주변의 많은 사람으로부터 “요즘은 정말 살기 좋은 세상이다”라는 말을 자주 듣고 있다. 흔히 100세 시대라거나 60이 아니라 70이 환갑이라는 말들이 이를 대변하는 것 같다. 이러한 세상에 살고 있는 나 스스로도 어릴 때의 어려웠던 환경을 되돌아보면 지금을 살고 있는 나는 참으로 다행하다고 생각하고 있다. 어찌 잘살 수 있는 환경만 다행하다고 생각하랴만, 좋은 부모만난 것, 좋은 가르침을 받은 것, 그리고 좋은 사람들로 인연한 것들을 빼고는 생각할 수 없는 다행이다. 그중 야납이 이생에 가장 다행하다고 여기는 것은 어려서부터 붓다의 가르침을 만났다는 것이다.

어찌 보면 지금이 참으로 살기 좋은 세상이 된 것 같으나, 한편 주변에서 늘 우리를 불안하게 하는 요소는 예나 지금이나 변치 않고 나는 물론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협하고 있다. 지진이나 화재, 물난리 등 자연재해는 물론 전쟁이나 테러, 자동차 사고 등 인재 또한 우리를 불안하게 하는 요소들이다. 어쩌면 경제적 물질적 안정을 추구하다 나도 모르게 예전에 없던 새로운 불안요소들을 내 주변에 만들어 놓고, 이제 그것들이 감추고 있던 독아를 드러내는 시대인지도 모른다. 사실 우리는 언제 꺼져버릴지 모르는 아주 불안정한 땅덩어리에서, 그 속에서도 불안정한 환경을 만들고 안전 불감증에 걸린 사람들처럼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다. 물질적 여유에 거저 ‘살기 좋은 세상’이라고 자축하며 살아가고 있는지도 모른다. 이것 또한 어리석음이 근원일 것이다.

이러한 오늘을 사는 우리가 성현의 가르침이 없었다면 참으로 난감한 일을 겪게 될 일이 한 두 가지가 아닐 것이다. 야납이 불법을 만나 참으로 다행하다한 까닭이 이러한 연유에서다. 권력이나 부귀영화를 위해 혈값에 나를 팔지 않을 수 있는 지혜를 얻고, 권력과 부귀영화를 누리하고자 저지르는 비리에 분노할 수 있는 용기를 일으키며, 남·여, 귀·천, 흑·백인종 등 갖가지 차별을 비판할 수 있고 만인을 평등하게 대할 자비를 가지게 한 가르침을 만났기에 다행하다고 하는 것이다. 하여 비록 불안정한 세상의 미약한 존재라지만 나 스스로 자책하지 않을 수 있는

것만으로도 감사할 일이다. 그 가르침을 이곳 보광사에서 실천하고자 동참하는 불자가 있어 또한 다행한 일이다.

이제 그러한 가르침을 주신 스승을 모심에 정성을 다한 도량을 만들려 한다. 우선적으로 외형이나마 보광사 신도님들의 숙원이었던 불단을 여법히 조성하여 실천도량으로서의 또 한 걸음을 내 딛고자 한다. 이러한 도량에서 한 발짝 한 발짝 우매한 삶으로부터 벗어나 이생에 이 불안정한 세상에서라도 스스로의 이상향을 이룸으로써 스승의 가르침에 부합하려 한다. 보광사 신도님들은 물론 많은 인연 있는 분들에게 다 함께 동참하게 하여 이 시대의 스승이신 붓다의 가르침을 실천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한 사람의 불자가 밝힌 등불이 어두운 구석(세상)을 밝히는 일등조우—燈照隅이기를 염원하며...

포틀랜드 보광사에서,

2016년 9월 26일

보광사 주지 화공 합장



대한불교 조계종 통도사 미주분원 포틀랜드 보광사
1921 SE 174th Ave. Portland OR 97233
전화: 503) 760-4497
www.bokwangsah.org